한국청소년연구 제21호 1995 여름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의 발전 특성과 위기에 대한 재고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교육을 중심으로-

허 청 선*
이 광 호**

Ⅰ. 문제제기
Ⅱ. 중국 조선족교육 이해의 전제
Ⅲ. 조선족교육의 발전과정상의 특성
Ⅳ. 조선족교육의 위기고조와 교육개혁의 방향

Ⅰ. 문제제기

오늘의 중국 조선족은 1860년대부터 한반도에서 경제적 빈곤 등과 같은 갖가지 이유로 중국 땅으로 이주한 한민족의 후예들이다. 중국의 조선족들은 이주 초기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문화와 교육전통을 비교적 온전히 유지시켜 왔다. 물론 이들이 중국이라는 다민족국가 속에서 문화대혁명과 같은 민족적 위기를 겪으면서도 자신의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문화주체의 인위적 노력과 아울러 역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1980년대 이후 중국의 특색있는 사회주의 건설과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개혁·개방화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조선족의 교육문화는 예기치 못했던 적지않은 갈등과 위기국면에 처해 있다. 조선족의 문화적 특수성 유지에 대한 학교교육의 위기의식은 교육수준의 질적 저하와 문화적 동화의 우려 등으로 조선족 내부에서 더욱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김경일, 1993 : 73-79 ; 리병철, 1993 : 396-407 ; 정판룡, 1994). 중국의 소수민족에 대한 보호와 장려정책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고, 새로운 역사적 발전시기에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일종의 위기의식이 고조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이는 조선족교육의 발전과정과 특성에서 찾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은 중국 조선족 학교교육이 지금까지 민족성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화이후 학교교육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위기의식을 해명

* 중국 연변대학 교수
**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하기 위해 조선족교육 발전과정에서 축적되어온 특성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현재 조선족교육의 질적 수준의 저하와 수단적 기능화 등의 문제가 조선족교육 내부의 특성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적지않다고 간주하고, 그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중국의 사회주의 건설이후 지금까지 조선족의 사회문화, 경제적 발전과 민족문화의 유지에 순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던 조선족 학교교육의 특징적 성격이 왜 개혁·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오히려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가를 규명하기 위해 중국 조선족교육의 다문화교육적 가능성의 관점에서 조선족교육의 특성과 문제점을 분석한다.

다문화교육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다민족국가에서 급속히 일반화되고 있다. 특히 1960년대 이후 소수민족의 정치적 대두와 함께 소멸될 것같았던 민족문화의 활성화운동이 전개되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현주민과의 마찰이 심화되면서 다문화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최근 정보화, 도시화 및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족과 문화를 달리하는 인적 교류가 급속하게 활성화되면서 생활양식의 물질적, 기술적 수준에서 문화적 융합 내지는 일원화가 촉진되는 한편으로 비물질적, 비기술적 수준의 문화(지향과 가치관 등) 측면에서는 오히려 각 민족의 자립적인 문화 활성화운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다민족교육의 계획은 이러한 민족집단과 민족문화의 대두 즉, 민족집단의 정치적 이익집단화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다(江淵一公, 1994 : 3-6). 결국 현대 산업사회에서 다민족교육의 관점으로 특정 민족집단의 교육과 문화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다문화주의 혹은 문화적 다원주의가 하나의 이념으로서 또 주요한 사회정책으로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문화유지 단위로서 민족집단의 교육의 기능과 성격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민족국가인 중국에서 조선민족집단이 타민족과 '우리'와 '그들'이라는 구별과 그에 따른 집단성원의 연대를 강조하는 한편으로 대중화주의(大中華主義)의 가족의 일원으로 공존하면서 형성·발전되어온 구조적 특징에 주목하여 다문화교육의 지향측면에서 교육의 성격과 특성을 밝혀보고자 한다. 또한 조선족 교육의 특성들이 현재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의 확산과 개혁·개방화추세에서 어떻게 기능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를 파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이다.

II. 중국 조선족교육 이해의 전제

중국의 조선족교육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전제해야 한다. 첫째, 중국 조선족교육은 사회주의이념에 바탕을 둔 중국 교육의 한 부문이라는 것이다. 흔히 한국사회에서는 조선족이 한민족의 일원이거나 그들이 주로 밀집해 있는 동북 3성이 고구려영토의 일부이었다는 사실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중국 국민의 한 구성원이라는 사실을 간과하는 경우가 적지않다. 실제 대부분의 조선족들은 세계각지에 흩어져 있는 한민족들과 달리 자기는 중국사람이며, 조선민족은 중화민족 대가정속의 일원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이 자신의 조국이라고 생각하고 있다.[1] (김종국, 1994 : 75 ; 한상복·권태

1) 실제 중국 료녕성 교육학원 민족교연부에서 료녕성의 심양, 무순, 단동지구에 있는 초급중학교 2학년과 고급중학교 3학년생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95.5%의 학생이 우리의 조국은 중국이며 조선족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으며 4.6%가 조선(북한) 또는 한국을 조국이라고 응답하고 있다(한창희, 1993 : 24-26).

환, 1993 : 93-95). 어쨌든 조선족교육이 중국교육의 한 부문이므로 조선족교육은 중국의 소수민족정책의 틀안에서 이해되어져야 한다.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중국은 소수민족과의 관계에 있어 연방제가 아닌 민족구역자치 방법을 채용하고 각 민족의 국가로부터의 분리·독립을 단호하게 거부하는 국가적 통일을 중시한다. 그러나 중국이 소수민족의 분리를 거부하면서도 민족자치를 실시하고 자치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우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당국의 소수민족 우대 배경은 인구구성상의 요인과 그밖에 독특한 역사적 근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연방제를 채택하였던 과거 소련과 비교할 때, 소련에서는 각 민족의 비율이 비슷하였던데 비해,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총면적은 전국토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전체인구는 총인구의 6.7%에 불과하다(中島勝住, 1993 : 288).[2)]

또한 역사적으로 조선족은 동북지방으로의 이주 초기에, 황무지나 다름없는 빈 공간에 들어가 새로이 개척함으로써 이질적인 문화의 큰 충돌없이 다른 민족과 동등한 위치에서 동북개발의 주역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1930년대에는 동북지역의 한 주체민족으로서 동북항일투쟁과 중국해방전쟁(抗國府戰)에 직접 참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중국공산당의 설립 초기부터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과 특별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즉, 건국이전부터 중국공산당은 동북에 이주한 월경민족(越境民族)인 조선족에게 조국이 조선이라는 사실을 승인하는 동시에 소수민족으로서 중국의 정식 공민으로 인정하는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였다(김동화, 1993 : 4-5).

그후 민족자치원리를 전면 파괴한 문화대혁명기를 지나 새로운 역사시기로 접어들면서 1982년 12월에는 새로이 『헌법』을 공포하여 민족구역자치권의 회복과 확대를 규정하고 아울러 소수민족 스스로 간부를 맡아 교육, 과학, 문화, 체육사업을 관리하는 자주권을 확고히 하였다. 동시에 1984년에는 새로운 헌법에 근거하여 민족구역자치를 법제화한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법』을 제정·공포함으로써 법적으로 민족자치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공산당의 민족자치원리에 따라 조선족은 그들의 대표적인 집거지구인 연변에 1952년 8월 최초로 『연변조선족 민족자치구 인민정부 조직조례』를 제정하여 자치구를 형성하였으며, 이어 1955년에는 헌법에 의거 자치주로 개칭하였다. 또한 1985년 4월에는 민족구역자치의 법제화에 발맞춰 『연변조선족 자치주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조선족의 민족자치권리를 향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중국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적 상황에 근거하여 민족단결, 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한 민족자치를 다민족국가의 통일과 존재방식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통일성을 전제로 한 민족자치 원리하에서 조선족은 자기민족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하는 나름대로의 교육제도와 풍토

2) 中島勝住는 중국의 烏蘭夫(中國의 民族地域自治, 北京周報, 1981年 第47號)의 견해를 인용하여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이 자치형태를 취하게 된 배경으로 소수민족의 인구상의 매우 적은 비율 이외에 다음과 같은 요인을 들고 있다. 첫째, 중앙집권적 국가로의 통일이 장기간에 걸쳐 실현되었기 때문에 '공동의 조국'이라는 의식이 비교적 강하다. 둘째,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민족이 혼합, 이동, 잡거(雜居)하였기 때문에 경제적 의존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셋째, 아편전쟁이후 제국주의 여러 국가에 의한 중국의 분열, 분할책동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족의 연합이 필요조건이었고, 이를 기초로한 국가통일이 민족의 자유를 확보하는 전제이었다. 넷째, 강력한 프로레타리아 정당 즉, 중국공산당이 존재하고 있다. 다섯째, 각 민족은 공동의 혁명투쟁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다섯째, 자원의 편재와 소수민족 지역의 근대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이 유리하다.

를 견지하는 이른바 민족특수성을 통한 국가통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볼때 중국조선족은 소수민족의 유형상 '자치적 소수민족'에 가까운 속성을 갖고 있다. 즉, 자치적 소수민족은 지배민족보다 소수이지만 정치, 경제적으로 엄격히 종속되지 않고 헌법이나 전통적 습관에 의해 그 인종적, 언어적, 종교적, 문화적 정체성이 보증되고 있는 집단이다. 이 경우 다수와 소수의 관계는 경쟁, 조절 혹은 동화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3)]

둘째, 조선족은 다민족국가 내의 소수민족이라는 상식적인 전제이다. 물론 현재 중국의 조선족은 이주 초기부터 항일투쟁과 사회주의 새중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타민족과 동등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중국건설의 당당한 일원으로 주체적 권리를 향유하는 권리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족은 漢族이라는 주체민족과 55개 소수민족으로 구성된 12억 인구속의 200만에 불과한 소수민족이다. 이를 새삼 다시 확인하는 까닭은 조선족의 사회정치적, 문화적 위치가 매우 불리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으며, 이는 조선족교육의 현실을 규정하는 주요한 전제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소수민족으로서 조선족이 특수한 시대적 여건에서 외부로부터 받게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충돌은 그들에게 더욱 증폭되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문화대혁명 기간동안 민족문화와 교육의 파괴에서 입은 조선족의 갈등과 충격은 소수민족의 처지와 상황을 잘 대변해주고 있다.

특히 오늘날 중국이 개혁·개방화를 가속화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시장경제와 경쟁원리의 도입 등으로, 조선족은 한편으로는 거대한 주체민족인 한족과의 공동번영을 전제한 경쟁이라는 충격과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비롯한 기타 서방문화의 침토라는 이중적 충격속에서 민족성의 상실증대라는 현실에 불안과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재 조선족은 현실의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이중적인 문화충격 속에서 민족성 상실과 민족의식의 약화라는 일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조선족교육은 사회문화적 충격과 갈등을 해소·완화하고 민족문화를 유지·발전시키는 '민족적 현대교육'의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셋째, 중국조선족은 과경민족(過境民族)인 동시에 과계민족(過堺民族)이라는 사실이다. 즉, 조선족은 역사적으로 동북지방에서 생겨난 민족이 아니라 19세기 중반이후 생활상의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본격적으로 이주하기 시작한 비교적 짧은 역사를 가진 이주민족인 동시에 지역적으로는 원래의 모체민족인 한민족이 모여사는 한반도와 접경을 두고 거주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조선족의 지리적, 역사적 특수성은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그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문제와 같은 정세는 조선족의 민족문제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특히 역사·문화적으로 한중수교(1992.8.24) 이전에는 북한과의 접촉을 참고로 주체적인 노력을 통해 민족의 특수성을 유지·발현해왔으나, 수교이후에는 한국인과의 인적교류와 문화접촉을 통해 다방면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예를 들어 이전까지 조선족 문화유지의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

3) Ogbu, P.U.는 다수자와 소수자의 관계본질과 그 관계의 역사적 변화를 파악하고 문화적으로 비교가능한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소수민족의 유형으로 자치적 소수민족, 카스트적 소수민족, 이민소수민족으로 분류하고 있다(Ogbu, 1978 : 22-25).

고 있었던 집거의 형태는 한국기업의 진출 등과 같은 경제적 여건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인구유동이 일어나 경제적으로 유리한 지역으로 흩어져 점차 와해되어짐으로써 민족문화 상실의 근본적 위기국면을 가속화하고 있는 한편으로, 한국의 대중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음으로 인해 어떤 형태로든지 과거 모체민족의 문화를 흡수·참고함으로써 민족문화 유지와 보존에 긍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여하튼 모체민족국가와 인접해 있는 과경, 과계민족으로서 조선족의 사회문화적, 지리적 위치는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 중국내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사회적, 교육적 역할과 지위를 수행·유지해가는데 있어 커다란 하나의 제한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Ⅲ. 조선족교육의 발전과정상의 특성

조선족교육의 특성형성과 발전은 그들이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 또한 중국교육의 일부문으로서 민족언어와 문화를 어떻게 유지·발전시켜 왔으며, 지배적 교육문화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1. 한반도 민족교육의 계승과 발전

조선족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신의 민족문화와 교육전통을 계승하고 자기민족의 단일학교와 학급을 유지하고 민족언어와 문자는 물론 고유의 문화를 보존·발전시키고 있는 것이다. 물론 현재 조선족의 문화자체는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기반으로 중국문화와의 상호 침투속에서 형성된 이중적 성격의 복합체이다. 지금까지는 중국문화와 공통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한편으로 전통문화의 특수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형식과 방법 면에서 자주적으로 민족적 특성을 구현하기 위해 조선말과 글로 수업하는 교육체계를 건립하고 발전시켜 왔으며, 조선어문 교육을 중요한 교육내용의 하나로 채택하고 민족의 문학과 예술교육을 중시한다.[4] 반면 조선역사와 조선지리 학과목은 1953년 10월이후 정치과 과목규정 등을 포함한 '중학교학계획(中學敎學計劃)' 수정초안이 공포됨과 동시에 조선지리는 세계지리, 조선역사는 세계역사, 중국조선족 역사는 중국역사의 일부분으로 축소 조정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족이 자신들의 모체인 민족문화를 계승·발전시킬 수 있었던 주요한 동력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족의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 의지와 중국의 독특한 소수민족정책의 복합적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은 조선족교육의 전통성 유지의 배경요인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조선족의 이주 초기의 독특한 역사적 조건에 의한 집거지구의 형성을 들 수 있다. 청나라는 1677년부터 연변지역을 포함한 동북지구를 만족의 발상지로 삼아 출입금지지역으로 정하고 만족기병 이외에 한족이나 조선사람이 이곳에 이주

4) 조선문학과 예술은 중소학교의 교육내용에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현재 고급중학교 1학년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정철의 관동별곡,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기영의 땅, 춘향전 등 민족문학 작품 31편이 실려 있고, 음악과에서는 도라지, 고향의 봄 등 전통적인 민요와 동요를 가르치고 있다. 또한 무용과에는 농악무등이 도입되어 있고, 체육과에서도 씨름, 그네, 널뛰기 등 민속체육항목을 교육하고 있다. 나아가 민족의 고유한 윤리도덕과 미풍양속도 학교교육에 도입하고 있다(박태수.김영림, 1992 : 333-334)

하여 개간하는 것을 엄금하였다. 이러한 청의 봉금정책은 동북지역을 200여년간 개발되지 않은 빈공간으로 방치하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바로 이 공간에 1860년대부터 조선인들의 본격적인 이주가 시작됨으로써 초기 이주민들은 기존의 문화나 다른 문화와 충돌없이 자신의 생활양식과 공간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60년부터 20세기 초까지 연변지구의 조선족은 매년 평균 2,500명의 증가추세를 보여 1908년경에는 인구가 제일 많은 민족으로 자리할 수 있었고 1945년경에는 63만 5천여명으로 늘어나 연변지구 총인구의 73.3%를 차지하였다(현룡남, 1993 : 125). 더욱이 조선족의 이주 중기인 1910년경부터 산동과 하북등지에서 漢族이 본격 이주하기 시작하였지만, 그들 역시 어려운 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이동한 일종의 이주문화일 뿐이었으며 조선족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생활공간을 찾아 울타리를 이루고 새로운 공간에서 자신들의 문화를 재조합하는데 주력하였기 때문에 급격한 문화접촉이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초기 동북지구에 이주한 2부류의 이주민들의 문화선택은 상호 배타적으로 자연환경의 변화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조선이주민의 90%이상이 농민이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물과 땅을 찾아 집단을 이루며 생활공간을 주로 이질문화와 동떨어진 산간벽지에 두고 폐쇄적인 자기 고유문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고 있었다.[5] (김경일, 1993 : 74-75). 또한 초기 이주한 조선인들의 80%이상이 영구 정착을 의도하지 않았고, 혈족의 일부가 본토(한반도)에 남아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출입의 잦은 유동으로 본토문화와의 지속적인 접촉과 유지를 강화하였다. 더욱이 일제하에서 동북지구가 반일투쟁의 근거지가 됨으로써 본토에서 이주한 진보적 지식인이나 애국투사들을 통해 반일투쟁과 관련된 민족계몽운동, 신문화운동 등의 영향으로 비교적 본토문화와 강한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개화된 교육문화를 흡수하는데 유리한 기반을 갖고 있었다. 즉, 이주한 민족집단의 집거와 온전한 민족문화의 고수가 조선족 전통문화 유지의 주요한 기반으로 작용하였다면, 일제하에서 동북지구의 교육을 통한 민족계몽운동과 신문화운동은 전통적인 민족문화를 개화·발전하게 만든 주요한 동력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주초기 조선족들은 한반도의 유교적 윤리도덕과 사상을 중심으로 한 조선교육의 전근대적 형태와 내용, 방법을 그대로 유지·계승할 수 있었다. 실제 서당에서는 조선에서와 같이 천자문, 동몽선습, 통감 등을 교재로 유교적 소양을 가르치고 있었다(박규찬·허청선외, 191991 : 6-8). 또한 근대적 교육으로 이행하는 시기에도 한반도에서의 교육구국운동의 연장선에서 사립학교 운동이 일어나 1906년 용정촌(龍井村)의 서전서숙을 근대적 학교의 기점으로 하여 각종 사숙등 민간과 종교계의 사립학교들이 번성하였다.

이렇게 조선족은 이주초기 집거를 핵으로 한 문화선택의 기반과 역사적 환경을 바탕으로 별다른 문화적 갈등없이 한반도 조선교육문화를 계승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는 현재까지 학교운영 형식면에서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자기민족 언어문자로 수업하는 단일한 조선족학교

5) 北京大學 朝鮮文化硏究所 김경일 교수는 연구자와의 면담(1993.3.31 21 : 30-23 : 30)과정에서 조선족의 민족문화교육이 유지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초기 이주민의 폐쇄적인 공간에서 타문화와 충돌없는 기반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사례를 소개하였다. 즉, 조선족이 집거하고 있는 한 농촌에 거주하는 1905년생의 이주 1세대인 한 노인은 지금까지도 漢語를 한마디도 모르고 자신의 고유언어와 문화를 유지하면서 아무런 불편없이 생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를 운영하면서 비교적 온전한 민족교육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앞에서 기술한 조선족의 이주초기의 역사적 배경과 문화선택의 환경요인과 함께 중국조선족의 첫 시작은 원시문화나 고대문화가 아니라 근대 여명기에 들어간 조선문화이었으며, 상당 기간 조선문화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반도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정판룡, 1993 : 8). 이는 곧 다른 어느 소수민족에 비해 문화적 기점과 토대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건국시에 교육의 보급 측면에서 다른 민족에 비해 그 출발점이 높아 자신의 민족문화와 교육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특히 사회주의 제도에 따른 집단위주의 사회구조는 조선족의 공동체적 문화전통과 융합하여 전통문화와 교육의 보존발전은 물론 물론 자연스러운 전통문화의 변이를 가져다주는 새로운 기반으로 작용하였다(김경일, 1993 : 76).

그 결과 신중국 건설초기 신민주주의 교육건설의 총 방침아래 진행된 교육보급 확대와 식자운동 등의 교육개혁 과정에서 조선족의 교육은 보급과 발전면에서 가장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다. 즉, 1952년에는 초등교육을, 1958년에 중등초기 교육인 초중교육의 보급을 기본상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전국에서 처음으로 기본상 문맹을 퇴치한 자치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1949년에 소수민족 대학으로는 최초로 연변대학을 창립하여 기본적인 민족교육체계를 완성하였다.

특히 1983년의 중국 전국과 연변 지구의 1만명당 학교 재학생수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교육의 보급과 발전상황은 두드러져 전국적인 평균에 비해 조선족의 재학생수는 거의 2배에 가깝다. 즉, 인구 1만명당 전국의 대학교 재학생이 11.3명인데 비해 연변은 22명이며, 고중재학생은 각각 63.8명, 135명이며, 초중재학생도 각각 387.2명과 639명이었다(허청선, 1987 : 47). 〈표 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연변지구에 거주하는 漢族과 비교하여도 조선족의 교육보급 수준은 매우 높다. 특히 고중이후 고등교육 단계에서 1만명당 재학생수는 연변지구의 평균에 비해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셋째, 타민족에 비해 두드러진 조선족의 교육에 대한 높은 열의를 지적해야 할 것이다. 이론바 조선족의 교육열은 유교문화의 전통과 소생산자인 농민들의 심리적 추구에 바탕을 두고 입신출세와 관련하여 심화되어 왔다(동범·홍식, 1993 : 13).

〈표 1〉 연변지구 만명당 재학생 정황표(1993년)

	총인구	소 학	초 중	고 중	농·직업중 학	중등전업학교		보통고등교육	성인고등교육
						소 계	중등사범		
연변지구	2,138,379	1,067	435	84	40	29	10	27	6
그 중 소수민족	917,745 (42.9)	991	494		39	34	14	36	7

비고 : 소수민족의 대부분은 연변지구의 소수민족 비율에 비추어 조선족으로 간주할 수 있음.
자료 :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1994학년도 교육통계자료, p.6.

특히 이들의 교육열의는 중국 현대사에서 타민족에 비해 높은 교육보급의 확보와 발전의 바탕이 되고 있다. 중국 건국초기부터 1952년 국가의 민영공조(民營公租)의 정책아래 일반 대중들에 의해 운영되던 민영학교(民營學校)를 공립으로 전환하기까지 조선족의 민영학교는 중소학교 보급의 주된 통로이었다. 1949년 4월 통계에 의하면 길림성에 조선족 소학교 622개소 중 민영학교가 576개소(87.6%)이었으며 중학교 40개소 중 25개소(62.5%)가 민영으로 꾸려지고 있었다(박규찬·허청선외, 1991 : 313). 또한 1958년 대약진운동의 시작과 중국당국에 의해 학교운영 형식의 다양화가 시도되고 다시 민영학교가 장려되면서 그해에 흑룡강성과 연변에 31교와 100여개의 민영중학교가 개교할 정도이었다(高奇, 이승민옮김, 1988 : 347-348 ; 박규찬·허청선외, 1991 : 314). 당시 조선족 농민들은 학교를 자기 마을의 문화중심지로 간주하였으며 학교건설을 위해서 금전적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조선족의 교육열의는 현시점에서 민족문화 유지의 바탕인 동시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매달리는 획일적인 진학률 추구로 나타나고 있다. 모든 학교는 상급학교로의 진학률에 의해 서열화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입시위주의 과중한 학습부담과 함께 소학교에서부터 진학준비를 위해 시달리고 있기도 하다(연변일보, 1994.1.8 ; 2.3 ; 한상복·권태환, 1993 : 239-244). 아울러 대학진학에 유리한 도시학교로의 진출이 두드러져 농촌에는 상대적으로 학생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연변지구를 대상으로 한 한 조사(반창화, 1993 ; 한상복·권태환, 1993 : 237)에 따르면 도시지역 학부모의 90%와 농촌지역의 80%이상의 학부모가 자식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기는 바라고 있으며, 현재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식을 남못지않게 공부시키는 것이며, 특히 농촌에서는 자식을 공부시켜야 하는데 조건이 나빠 도시나 진(鎭)으로 이사하는 것을 최대의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이다. 입시위주의 교육과 과다한 진학경쟁은 특히 초중단계에서 학생의 성적에 의한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어 적지않은 유실생(중퇴생)을 양산해 내고 있기도 하다.[6]

2. 조선족교육 분포의 분산성

조선족교육의 또다른 특성은 초기 이주민의 정착지가 동북의 변방지역을 중심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찾아 분산됨으로써 연변을 중심으로한 일부 집거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잡거, 소집거(大雜居, 小集居)'의 형태가 주류를 이룸으로해서 학교의 분포 자체가 매우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주초기 거의 맨주먹으로 월경, 천입한 극빈한 조선족 농민들은 당시 평원에서는 땅세와 기타 잡세(雜稅)가 많고 산골에서는 토비와 군대의 소동이 빈번하였기 때문에 부득이 유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예를 들어 북만(北滿)지구의 201호 조선족의 유동생활을 조사(허청선, 1987))한 바에 의하면, 1931년 9.18사변 이전에 유동하지 않은 가구는 2호, 1-4차례 유동한 호수는 87호, 4-8차례 유동한 호수는 99호, 9-13차례 유동한 호수는 13호에 이르고 있어 그 유동성

6) 현재 중국조선족 교육의 문제중 유실생의 증가가 심각한 문제중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유실생이 두드러지다. 흑룡강성 호림현의 조선족 초급중학교의 실례를 보면, 본래 100명의 학생이 재학하였는데 1992년 9월부터 1993년 4월 사이에 25.5%의 학생이 중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퇴생의 38.5%는 공부에 흥미를 잃어 중도 포기하였으며, 30%는 가정의 경제난 때문에, 나머지 일부 학생은 한족학교로 전학하기 위해 중퇴하였다(주상용, 1994 : 12-13).

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1948년 12월에 조사한 불완전한 통계에 의하면, 요동성의 13만 조선족은 19개 시·현에 분산·거주하고 있으며, 그곳에 소학교가 324교에 학생수는 2,200명으로 평균 1교당 6.8명이 재학하여 학교분포가 얼마나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신빈, 장백현을 비롯한 8개 현의 경우를 보면, 1,375명의 학생이 215개 학교에 분산되어 재학하였는데, 그중 학생이 300명이상 되는 학교가 1개교, 100명이상 되는 학교가 39개교, 30명이하 학교가 62개교로 한학교당 평균 학생이 61명 정도이었다(허청선, 1987).

현재도 도시와 진이외 지구의 조선족학교 분포의 분산정도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더욱이 개혁·개방화이후 농촌인구의 도시에로 진입이 가속화되면서 농촌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를 보임으로써 산재지구를 비롯한 농촌의 소규모학교의 분산정도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표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조선족의 초급중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의 1교당 평균 재학생수가 1,928.8명인데 비해 현(진)의 경우 401.0명, 농촌지역의 경우 136.1명으로 도시와 농촌간의 학교분포의 분산정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소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경우 1,342.7명, 현(진)의 경우 436.7명, 농촌의 경우 100.6명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1학급당 평균학생수를 보면, 도시지역의 초급학교는 평균 78.7명, 농촌지역은 29.9명이며, 소학교의 경우 도시지역은 53.2명, 농촌지역은 19.4명이다. 이렇게 볼때 초급중학교에 비해 소학교의 농촌지역의 분포가 훨씬 소규모로 분산되어 있으며, 도시지역에서는 소학교에 비해 초급중학교의 과밀학급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연길시의 경우 일부 소학교에서는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에 비추어 농촌의 분산된 학교분포의 정도를 잘 알 수 있다.[7] 요녕성의 경우에도 1991년 통계에 의하면, 225교의 소학교 가운데 60명정도의 학급규모의 학교가 120교, 30명 정도가 68교, 9명정도의 학교가 25교, 3명도 되지 않는 학급규모의

〈표 2〉 연변지구 조선족 중소학교 1교당 평균재학생수의 지역별 비교 (1993년)

	보통초급중학교			보통소학교		
	학교수	재학생수	1교당 평균학생수	학교수	재학생수	1교당 평균학생수
성시	12(294)	21,146	1,928.8(78.7)	27(681)	36,253	1,342.7(53.2)
현진	35(308)	14,036	401.0(45.6)	49(554)	21,396	436.7(38.6)
농촌	36(164)	4,901	136.1(29.9)	261(1355)	26,249	100.6(19.4)
계	83(766)	42,083	507.0(55.9)	337(2590)	83,898	249.0(32.4)

비고 : 학교수의 ( )는 학급수이며, 1교당 평균학생수의 ( )는 1학급당 평균학생수임.
자료 :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1994학년도 교육통계자료에서 관련부분을 재구성하거나 계산한 수치임.

7) 1993년 현재 연변지구에서 중학교의 2부제는 해결되었고, 소학교의 경우 총 1058개교 중 0.9%에 해당하는 9개교에서 2부제가 실시중이다. 2부제실시 소학교의 지역별 내역을 보면 성(시)지역이 6개교, 현(진)지역이 1개교, 농촌지역이 2개교이다. 연길시의 경우를 보면 총 50개교의 소학교중 5개교(10%)에서 2부제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4 : 13 ; 179).

학교가 7교로 조사되었다(허청선·박태수, 1993 : 392).

1985년 본격적인 개혁·개방화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시기에 농촌지구 중소학교의 소규모 분산은 중국 농촌교육의 특성이기도 하거니와 조선족의 경우 교육의 보급률을 높이는 주요한 통로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개혁·개방화이후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효율성이 강조되고, 한편으로 도시화의 진전과 함께 농촌의 유출인구가 늘어감에 따라 일부 산재지구의 소규모 중소학교는 자체의 존폐의 위기에 직면하거나,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즉, 연변의 농촌(특히는 변경, 산간지구) 소학교(다수는 민족학교) 분포는 지나치게 분산되고 규모가 작으며 학급수가 적기 때문에 교육의 질과 학교를 꾸리는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불리하였다(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 : 6).

현재 연변자치주 정부에서는 소수민족의 농촌 중소학교의 분포조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에 역점을 두고 있다(연변조선족 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 : 6 ; 엄증국, 1994 : 10). 첫째, 농촌지구의 빈곤한 학생의 통학문제와 학교분포 조절을 위한 통합의 새로운 학교의 형태로 학생들을 일정한 기숙사에 수용하는 기숙제학교를 설립을 강화하고 있다. 연변에서는 1993년 현재 실험적으로 5개소의 기숙제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8차 5개년계획(8·5기간 ; 1991-1995년) 기간동안 40개소로 늘릴 계획이다. 둘째, 학교의 조건을 개선하고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학생의 통학범위가 4㎞를 넘지않는 학교는 없애거나 합병을 시도하고 있다. 셋째, 최근 중국의 교육개혁 과제의 하나로 학교관리의 주체를 과거 집권제에서 분급관리체제로 전환하면서도 산재지구와 잡거지구의 학교분산을 조절하고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위해 관리주체를 한급 올려 현(시)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8] 특히 기숙제학교의 설립은 1981년이후 소수민족 특구(特區)와 경제적 곤란지역, 거주분산적 소수민족 산재지구의 민족중소학교에 대한 교육보조금 지급과 함께 중국당국의 가장 중심적인 교육개혁이자 소수민족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王美逢, 1986 ; 柳斌, 1988 ; 박규찬·허청선외, 1991 : 474-479).

3. 조선족교육 운영형식의 단일성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해방전 조선족교육은 민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사립학교를 비롯하여 단일한 조선족학교를 운영하였다. 해방후에도 교육에서 평등한 권리가 보장되고 학생모집에서도 소수민족을 우대하는 등의 소수민족정책이 실시됨에 따라 계속 조선족 단일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다. 현재 중소학교 단계에서는 단일한 조선족학교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부분적으로 한족과 연합하여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조선족학생만의 학급을 단독으로 설치하고 있다.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현재 연변지구의 경우 보통중학 단계에서 조선족 단일학교는 전체의 25.4%인 51개교, 연합학교는 24.9%인 50개교이며 재학생수로는 민족단일학교 재학생이 31.6%, 연합학교 재학생이 19.9%이

8) 각급학교의 분급관리는 최근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교육법제화의 추세에 따라 조선족자치주 최초의 교육관련 법규라고 할 수 있는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1994년 4월 제정시행)에 법제화되어 있다. 교육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조선족 기초교육은 각급 인민정부에서 책임지며 村, 鄉(鎭), 縣(市), 州 등 4급 학교운영체제와 鄉(鎭), 縣(市), 州 등 3급관리체제를 실시한다고 규정하였다.

다. 소학교의 경우 민족단일학교와 연합학교의 비율이 전체의 19.6%와 13.2%, 재학생수는 각각 30.2%와 6.5%로 나타나 보통중등학교에 비해 소학교의 민족학교와 연합학교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표 1〉의 1만명당 재학생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중등전업학교 이상의 고등교육 단계에서는 조선족의 재학율이 높으나 중소학교 단계에서는 오히려 적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족의 중소학교 학생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조선족인구의 연령구성상 소년아동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1-14세까지의 소년아동은 연변 조선족 총인구의 24%에 불과하며, 이는 1982년에 비해 2.4%가 낮아진 수치이며, 전국의 소년아동 평균비율보다 3.7%, 길림성 전체의 비율보다 4.3%정도 더 적다(현룡남, 1993 : 126-127). 이러한 조선족 소년아동비율의 감소는 타민족에 비해 일찍이 가족계획(計劃生育)에 성공하여 국가적으로 소수민족에 한해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명의 자녀만 두는 가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조선족 대학교육의 경우 학생들은 연변대학과 같은 자기지역의 민족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상황으로 〈표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령전 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단일한 민족교육체계를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밖에 본인의 성적에 따라 중국 전역의 일반 또는 중점대학은 물론 민족예비학급, 민족학원 및 중앙민족대학 등의 고등교육기관에 입학할 수도 있다. 특히 조선족을 비롯한 소수민족의 학생들은 민족언어로 국가통일시험인 입학고사를 치를 수 있을 뿐

〈표 3〉 연변지구 각급, 각 유형 교육 기본상황 (1993년)

	학교수				재학생수			
	전 체	조선족			전 체	조선족		
		민족단일	연 합	소 계		민족단일	연 합	소 계
고등학교	5				5,878			3,312
중등전업	9				6,273			3,134
(중등사범)	(2)	(1)	(0)	(1)	(2,273)			(1,295)
보 초급중학	154	35	48	83	93,061	26,848	6,796	33,634
통 고급중학	24	9	2	11	18,103	8,238	281	8,439
중 완전중학	23	7	0	7				
학 소 계	201	51	50	101	111,164	35,086	6,997	42,083
농·직업중합	18				8,709			
기 공 학 교	17				3,704			
보통소학교	1,028	201	136	337	228,307	69,031	14,867	83,998

비고 : 1) 완전중학은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설치된 6년제 학교임.
2) 표에 제시된 교육기관이외에 고등교육기관으로 직공대학, 농민대학, 교육학원, 텔레비젼대학,야간대학 등이 있으며, 중등기관으로 교사연수학교, 성인교육기관으로 성인중등전업학교, 성인중소학교 등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나 생략하였음.

자료 :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1994학년도 교육통계자료에서 관련부분을 재구성한 것임.

아니라 시험점수에서도 일정한 가산점을 부여받는 등의 민족간부와 인재의 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우대를 받고 있다.

여하튼 조선족의 학교운영 형식이 중·소학교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민족적 단일체계를 이루고 있어 민족교육의 연속성과 계통성에 의한 민족전통과 문화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단일의 교육체계 운영은 1985년 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조례"와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의 규정에 의해 법적으로 뒷받침되고 있기도 하다. 즉, 교육조례 제 11조에 '자치주내에는 조선족 유치원, 소학교, 초급중학교, 고급중학교, 특수교육학교, 사범학교(아래에 조선족학교라 약칭함)를 설립한다'고 명시하여 민족단일 교육의 계통과 연속성을 자치주 정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조례에는 단일한 조선족학교 설립의 원칙적인 전제이외에 다음과 같은 민족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첫째, 조선족인구가 적은 지방을 고려하여 '조선족인구가 당지 총인구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례가 비교적 낮아 단독적으로 조선족학교를 설립하기 어려운 지방에서는 민족련합학교를 설립하고 조선족반을 설치해야(제 12조)'하도록 하였다. 둘째, 중등전문기술학교는 '양성목표, 전업설치, 학과내용, 학생원천에 근거하여 단독적으로 조선족 직업기술학교,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를 설립할 수 있고 다민족련합학교를 설립할 수도 있다(제 13조)'. 셋째, '행정관할지구가 달라 학생들이 가까운 곳에 입학할 수 없는 지방은 학교운영단위와 협상하고 현(시)급 교육행정부문의 비준을 거쳐 행정관할지구 계선을 타파하고 촌련합학교 또는 향련합학교를 꾸릴 수 있다(제 14조)'. 넷째, 거주지가 분산되었거나 학생들이 통학하기 어렵거나 민족반 정원이 차지않는 국경지대와 산간지대는 기숙을 위주로 하거나 조학금을 위주로 하는 조선족 소학교와 중학교를 꾸릴 수 있다(제15조)' (송장한, 1994 : 7-8). 이렇게 볼때 적어도 지금까지 조선족의 민족전통과 의식의 유지는 자신들의 고유민족언어로 교육하는 민족단일학교의 운영에 의한 민족교육의 계통성과 연속성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선족 언어교육의 이중성

민족의 고유언어는 가장 중요한 민족특징중의 하나이다. 특히 다민족국가의 교육에서 자신의 고유언어에 대한 숙달정도는 민족집단 정체성의 확립과 학업성취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ankston, Ⅲ & Min Zhou, 1995 : 1-17). 중국의 조선족 역시 지금까지 민족의 단일학교 운영과 함께 고유언어의 사용이 비단 교수용어 문제로서 뿐만 아니라 당의 민족정책 관철여부와 민족교육의 질을 높이는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1991 : 11). 즉, 조선족교육에서 다른 소수민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족정체성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자기의 언어문자를 교육하는 동시에 중국의 공동언어인 漢語를 제2언어로 강화하는 이중언어 정책을 고수하여 왔다

특히 개혁·개방화이후 단일민족학교의 회복과 건설과 함께 학교교육에서나 사회에서 민족언어를 잘 배울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한편으로 1988년 제정된 "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어문사업조례", 자치주조례 및 교육조례를 통해 이중언어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즉, 자치주 교육조례 제 20조에 '조선족학교는 규범적인 조선언어문자로 강의해야 하며 직업기술

학교와 기능공학교, 중등전문학교는 조선언어문자를 교수용어로 하는 외 한어로 강의할 수도 있도록' 하여 적어도 기초교육 단계의 민족학교에서는 조선어교수를 강제하고 있다. 또한 '기초교육 단계에 먼저 조선어문교수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어문교수와 외국어교수도 강화하여 학생들이 朝·漢 이중언어를 다 장악하게 하며 그들에게 여러 가지 언어문자 학습과 사용에 기초를 닦아 주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방화 초기단계까지 민족언어교육은 민족단일학교 형식의 연속성과 계통성에 크게 의존하며, 외부와의 커다란 문화적 충돌이 없는 다소 폐쇄적 환경속에서 민족의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개별적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족의 집거형태가 서서히 와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족언어교육은 더이상 학교교육의 연속성과 계통성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표 4〉 한족 초급 중학교와 조선족 초급 중학교 수업시간 배치의 비교 (1992.9.-1993.7)

	조선족초중						한족초중					
	1학년		2학년		3학년		1학년		2학년		3학년	
	요강	실제	요강	실제	요강	실제	요강	실제	요강	실제	요강	실제
어문(漢語)	5	7	5	6	5	6	6	7	6	6	6	7
조선어	4	5	3	4	3	5						
외국어	5	6	5	7	5	6	5	7	5	6	5	6
수학	5	6	6	8	6	8	5	7	6	10	6	12
물리			2	1	3	5			3	4	3	5
화학					3	6					3	5
정치	2	2	2	2	2	4	2	2	2	2	2	4
역사	3	3	2	2			3	3	2	2		
지리	3	3	2	2			3	3	2	2		
노동	1	1	1	1	1	1	1	1	1	1	1	1
체육	2	2	2	2	2	2	2	2	2	2	2	2
음악	1	1	1	1	1	1	2	2	2	2	2	2
미술	1	1	1	1	1	1	1	1	1	1	1	1
생물					2	3					3	4
식물	2	2					2	2				
동물			2	2					2	2		
자습		3		3		5	(매주 3시간의 자습은 수업시간에 충당)					
주시간	34	40	34	41	34	49	31	36	33	39	33	49
년시간	1088	1280	1088	1312	1088	1568	992	1152	1056	1248	1056	1568
년초과시간	192		224		480		160		192		512	

비고 : 연길시에 소재한 1개교의 한족초·중과 1개교의 조선족초·중의 1992.9-1993.7학년도 수업배치시간표를 비교한 것임.

자료 : 리영식(1993), "초·중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동북교육과학, 1993년 제1기, p.11.

그런데 개방화 초기단계까지 민족언어교육은 민족단일학교 형식의 연속성과 계통성에 크게 의존하며, 외부와의 커다란 문화적 충돌이 없는 다소 폐쇄적 환경속에서 민족의 집거지역을 중심으로 유지·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개별적 경쟁체제가 형성되는 한편 경제발전에 따른 도시화가 진전됨에 따라 민족의 집거형태가 서서히 와해 조짐을 보임에 따라 민족언어교육은 더이상 학교교육의 연속성과 계통성에만 의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최근 상품경제가 확산되어지면서 농촌과 같은 산재지구에서 뿐만 아니라 도시지역에서도 집거형식을 취했던 과거와 달리 아파트의 건립등 거주환경의 변화로 조선족의 분산정도는 심화되고 있다. 개방의 진전과 함께 조선족은 변방지역에서 내지 또는 연해지구으로 이동하는 새로운 유동성이 야기(연변일보, 1995.1.4)됨에 따라 조선족 청소년을 중심으로 자기 민족언어 문맹과 漢族化의 경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1980년대이후 생활전반에 상품·시장경제와 경쟁기제가 도입됨과 더불어 민족간의 왕래와 인구유동이 빈번해지고 거주환경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조선족은 실생활의 생존에 있어 공용어인 漢語의 장애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적 수요에 보다 쉽게 적응하기 위해 조선족학교 보다는 한족학교에 취학하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1983년 흑룡강성에서 한족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족학생의 통계를 보면, 소학교의 경우 조선족학교 학생이 50,834명이며 한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은 36.3%인 18,475명에 달하며, 초급중학교의 경우 조선족학교 22,061명, 한족학교 재학생이 8,436명(38.2%), 고급중학교의 경우 조선족학교 8,177명, 한족학교에 재학중인 조선족학생은 3,014명(36.9%)에 이르고 있어(리병철, 1993 : 405-406) 조선족학교 재학생의 35% 이상의 조선족 학생이 한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셈이다. 물론 이 통계는 농촌을 중심으로한 특정지역의 통계이지만, 조선족학생의 한족학교 취학은 대집거지역인 연길시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9]

여하튼 개방화이후 조선족의 일종의 이중언어의 위기는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표 4〉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한족학교와 조선족학교의 수업부담 면에서 2학교 공히 실제 수업 시간수가 교수요강의 규정보다 많으며, 특히 주요한 입시과목인 어문, 외국어, 수학, 물리, 화학의 실제 초과시간수가 많다는 것이다. 조선족학교는 한족학교에 비해 이중언어교육으로 조선어 1과목이 더 많으며 연간 초과시간수는 1학년이 32일, 2학년 32일, 3학년 68일로 3년과정에 총 반년의 수업시간을 더 늘인 셈이고, 한족학교에 비해서는 총 162시간(약 4개월)이 더 과중되고 있다(리영식, 1993 : 12).

조선족의 이중언어교육은 한족학생에 비해 조선족학생의 학습시간과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고, 학습부담의 과중은 곧 조선족교육의 상대적 질적 저하로 직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조선족교육의 최대의 위기극복 노력은 과거 민족학교의 계통성에 의존하던 이중언어교육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가 하는 언어교육의 '효율성' 문제와 수업부담의 경감과 질적 제

9) 1985년 동북3성의 조선족학생의 정황을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소학생중 한족학교에 다니는 비율은 길림성 산재지구 15.6%, 연변 3.0%, 흑룡강성 23.6%, 요녕성 10.9%이며 중학생의 경우 각각 32.9%, 10.2%, 36.1%, 23.5%를 차지하고 있다(박규찬.허청선외, 1991 : 494).

고를 위한 '학제개혁'으로 모아지고 있다(남일성, 1987 : 110-127 ; 강영덕, 1993 : 3-7).

Ⅳ. 조선족교육의 위기고조와 교육개혁의 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선족은 다른 소수민족에 앞서 일찍이 비교적 완전한 민족교육체제를 바탕으로 민족고유의 독특성과 의식을 유지·발전시켜 왔다. 〈표 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993년 현재 거의 모든 학령기 아동들이 소학교와 초급중학교에 입·진학하고 있으며, 고·중 이상의 단계에도 초중 졸업생의 반수이상이 진학하고 있다.

〈표 5〉 연변지구 중소학교 입학 및 진학률(1993년)

소학교 입학률	초급중학 진학률	고급 중학단계 진학률			
		소 계	고급중학	중등전업 및 사범	농·직업고중
99.45	95.16	56.38	26.85	7.96	21.56

비고 : 농·직업고중으로의 진학률에는 技工學校가 포함되어 있음.
자료 :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1994학년도 교육통계자료, p.7.

그런데 중국의 개혁·개방화와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은 조선족의 교육문화에 새로운 적지않은 충격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지금까지 계획경제하에서 사회주의적 집단성을 전제로 한 교육의 형식과 이념은 점차 와해되어지고 개별적 경쟁을 전제로 한 개인의 능력과 학력을 통한 자원의 배분체제가 확립되고 있다. 더욱이 인재의 선발과 배분은 점차 국가의 일률적 배치관행에서 벗어나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점차 채용단위의 선택에 맡겨질 전망이다(리붕, 1994 : 4-5). 이러한 시장경제와 개별경쟁적 기제의 도입으로 민족의 집단성과 집거를 기초로 형성된 학교교육의 연속성과 계통성을 바탕으로한 민족문화의 유지 형태는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진행하고 있는 개혁·개방화는 기존의 관계의 형식과 틀에서 벗어나 하나의 주체가 다른 주체들과 서로 개방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의미한다. 정상적인 개방화는 관계를 맺는 주체들간에 상호 개체성을 유지하는 자율적인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전제하여야 한다. 특히 다민족국가의 경우, 개방화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물론 국가구성원 개인간 또는 민족간의 민족적 정체와 자존을 인정하는 개체성을 바탕으로 하는 동시에 각각의 특성을 보전할 수 있는 평등성과 공평성의 원칙에 의거하여 국가통일성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따라서 개방화시대의 교육은 적어도 개체성 확보를 위해 국민국가의 정체성과 자존을 확보하는 역사교육과, 평등성에 입각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민주공민교육, 그리고 개방화의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내기 위한 공평성을 전제한 전문과학 기술교육이 기본적인 요소로 등장하게 된다(엄정식, 1994 : 54-55).

이런 측면에서 개혁·개방화이후 1985년과 1993년 2차례에 걸쳐 발표된 중국의 현대화를 위한 교육개혁 즉, "교육체제개혁에 관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결정"과 "중국교육개혁 및 발전요강(中國敎育改革和發展綱要, 中共中央, 國務院1993.2.13.印發, 참조 : 國家敎育委員會辦公廳,

1993 : 1-29)"을 비롯한 각종 교육적 개혁조치들은 중국 특색있는 사회주의교육체제의 건설을 목표로 개방화의 원칙과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수립의 수요에 순응하고 21세기의 발전기회와 조건에 맞추기 위해' 1985년도의 결정을 구체화시킨 1990년대 중반이후 중국교육사업의 강령성 문건인 '중국교육개혁 및 발전요강'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이중적 과제들을 추구하고 있다. 즉, 9년제 의무교육 보급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와, 교육품질과 학교운영의 효과성의 제고를 통한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李鐵暎, 1993 : 130-131 ; 李鵬, 1994 : 6-10).[10] 의무교육의 보급확대는 농촌 특히 변방지구와 빈곤지구의 전 민족의 공민적 자질을 제고하기 위한 국가의 가장 주요한 중점사업이다. 또한 교육의 질적 제고는 세계적 범위에서 경제경쟁과 국가 경쟁력강화에 절실히 요구되는 과학기술중심의 인재양성을 위해 '집중과 중점방식의 엘리트선발'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211공정"사업으로 대변되는 수월성추구는 고등교육개혁의 중심과제이다.[11]

또한 1994년에는 '경제체제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고 공적 소유제와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것을 주체로 하며 기타 多種 경제성분과 분배방식이 병존하는 조건하에서 어떻게 사회주의 의식형태의 주도적인 지위를 견지하여 맑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과 등소평동지의 중국특색이 있는 사회주의 건설이론으로 청소년을 교육'하기 위해 "학교덕육사업을 일층 강화개진할데 관한 중공중앙의 약간의 의견(1994.8.31, 中共中央 于進一步加強和改進學校德育工作的若干意見)"과 "애국주의 교육실시요강(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을 발표하였다. 즉, 시장경제의 도입과 개별경쟁기제를 도입하는 한편으로 청소년의 덕육강화의 일환으로 애국주의와 집단주의 및 사회주의 사상교양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애국주의 교양을 위해 중화민족의 훌륭한 도덕과 전통에 대한 교양은 물론 중국근대사, 현대사 등의 역사교육과 국정교양(國政教養)을 중심으로 국기승강제도, 각종 행사에서 국가부르기 및 애국주의 교양기지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중국교육의 이중적 개혁방향과 성격은 중화민족의 일원인 조선족교육의 개혁방향의 지침인 동시에 틀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즉, 개혁·개방에 의한 조선족의 대외개방은 지금까지 비교적 폐쇄적 공간에서 집거형태에 의존해 온 민족교육의 유지형식에 커다란 구조적 위기요인으로 작용하며, 애국주의와 덕육강화를 통한 중화민족의 통일성에 대한 강조는 자칫 조선족 고유의 민족교육의 여지를 제한하거나 충돌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개방화시기에 민족적 자존으로서의 개체성 확보가 전제되어 있지 않을 경우 소수민족이나 부문적 하위문화들은 외부의 강력한 주도문화에 의한 침투는 강해지며 동화될

10) '중국교육개혁 및 발전요강'에 반영되어져 있는 1990년대 중국교육개혁의 기본방향은 "兩基", "兩全", "兩重"으로 표현되고 있다. 첫째, 兩基는 9년제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보급과 청장년 문맹의 기본상 제거를 의미하며 둘째, 兩全은 교육방침의 전면적인 관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의 전면적인 제고 셋째, 兩重은 100여개소의 중점대학과 1000여개의 중점학과 건설 즉, 211공정을 의미한다. 기타 현대중국의 교육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연구를 통해 발표하고자 한다.

11) 1993년 6월 전국교육공작회의를 통해 고등교육의 체제, 관리 및 교학제도개혁을 비롯한 전반적인 개혁을 추구하면서, 기존의 중점대학은 유지하되 21세기에 요구되는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해 고등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효율적인 신형대학을 양성하기 위한 개혁의 방법으로 새로이 100개의 중점대학을 지정하고 1,000개의 중점학과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方燿楣, 1994 : 40-44).

수 있는 가능성은 증폭된다. 이때 동화의 위험성은 문화 외적 강제력에 의해서 보다는 개방화 그 자체에 의해 급속도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개혁·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조선족교육에서 이러한 가능성 즉, 동화 내지는 漢族化의 조짐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첫째, 개방화와 함께 도시로의 유입인구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시에서의 민족문화구조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더욱이 최근 두만강개발 열풍에 따라 조선족의 집거지구에 타민족의 유입이 증대함으로써 조선족문화는 표층과 심층에서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청소년세대의 급격한 동화를 초래하고 있다(김경일, 1993). 이는 곧 기존의 집거와 단일한 민족교육체제에 의존해 온 민족교육을 구조적 조건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교육적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둘째, 이중언어교육에서 현재도 집거지구에서는 민족언어인 조선어가 우세하고 漢語가 약세에 있음으로 인해 개방화에 수요되는 교류와 적응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한편으로 잡거지구에서는 역으로 조선어가 약세이고 한어가 우세를 차지하는 실정으로 잡거지구에서부터 조선어맹(朝鮮語盲)등의 동화조짐은 증가(허청선·박태수, 1993)하고 있다. 특히 한어의 능통한 습득과 그에 따른 실제 생활에서의 수요와 민족의식의 발현과 유지는 개방화와 함께 점차 제로섬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셋째, 1980년대이후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조선족교육의 질적 저하의 원인이 주로 민족문화의 울타리안에서 폐쇄적 성격을 띰으로 인해 한족언어, 문자교육을 실질상 홀대한 데에서 찾아지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리병철, 1993 ; 리빈, 1992 ; 권종식, 1988).[12]

더욱이 일반대학에 진학한 조선족 학생들조차 어려운 관문을 뚫고 진학하였음에도 한어소양의 부족으로 학습에 좇아가지 못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라창진, 1988 : 15 ; 이원봉, 1992 : 67). 이러한 현상은 개방화가 가속화되면서 요구되는 인재육성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을 중핵으로한 중점방식의 엘리트 선발 형식에 조선족 교육이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조선족교육은 비교적 완전한 민족교육체제를 형성하고 있지만, 고등교육의 경우 종합성대학으로서는 민족학교 교사양성을 위주하였던 연변대학이 유일하다. 개방화이전에는 다른 민족의 교육보급과 질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지만, 개방화이후 중소학교교육이 보편화되고 나아가 고등교육의 보급과 개혁이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등장함에 따라 조선족

12) 개방화이후 조선족교육의 질적 저하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1986년 대학입학성적을 보면 길림성 전체에서 연변지구 학생들의 수학, 물리, 화학등의 이과 성적이 한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떨어졌으며, 1991년 조사에서도 정치, 수학, 지리, 역사 등의 평균성적에서 길림성 8개지구에서 연변지구가 가장 낮은 성적을 보였다. 이러한 조선족 학생들의 상대적 성적 저하는 최근 보편적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13) 연변지구에서도 1995년초에 고등교육 개혁으로 일환으로 지금까지 각각 독립해 있던 연변의학원, 농학원, 연변대학, 연변과학기술대학(사립)등을 통합하여 명실상부한 종합대학을 형성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지역의 경제건설에 수요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외무역학이나 관광학부 등과 경영학부를 설치하고 이공계학과를 강화하는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하얼빈공대등 국내의 수준 높은 대학과 연합하여 교육하는 방법으로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연변대학 박문일총장과의 면담, 1995.3.20, 15 : 00-16 : 20). 이러한 개혁은 211工程에 의한 중국고등교육개혁에 적응하여 새로이 설정될 중점대학으로 승격되기 위한 노력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집중과 중점방식의 엘리트선발체제에 적응하기 위한 조선족의 자구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의 고등교육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13] 따라서 현재 조선족 고중졸업생중 적지 않은 비율이 다른 지방의 일반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으며, 특히 중점학교로서 연변지구의 최고 엘리트양성기관인 연변1중의 경우 80-90%의 학생이 타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됨으로써 조선족 거주지역의 인재유출 현상이 심각한 실정이다[14]

지금까지 조선족들이 겪어보지 못한 개방화의 충격으로 야기되고 있는 민족교육의 위기는 다문화교육의 차원에서 민족성의 유지와 다민족국가에서의 생존과 실제생활에서의 수요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를 달성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교육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와 같은 민족단일 교육체제를 유지해야 할 것인가, 조선족학교에서 계속 민족언어로 우선 교수해야 하며 그러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2중 3중의 언어교육을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가 등의 지금까지 논의 자체가 불필요했던 사항조차도 고려하여 민족교육의 새로운 발전형태를 모색해야할 시점에 있다. 조선족은 민족집단으로서 중국사회에서 공식적 위치를 가진 합법적 구성체로 공인되고 있다. 이러한 일종의 '집합적 다원주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다민족국가에서의 민족간의 평등에 대한 인식은 조건의 평등을 중시한다(江淵一公, 1994 : 17-18). 그러나 현재까지 조선족들은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속에서 적어도 타민족과의 관계에 있어 기회의 평등을 누려 왔지만, 주체민족인 漢族에 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조건의 격차는 개방화 이후 날로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다민족교육으로서 조선족 교육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한족과의 대등한 기회를 가지고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고 상호 번영을 누리는 데 두어야 한다.

다행히 중국내에서 조선족이 독자적인 교육체제를 형성하고 학제 및 교육방법을 구성할 수 있는 여지는 교육행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즉, 현재 중국에서는 소수민족의 교육과 문화적 보호를 위해 각종 조치들을 법적으로 제정, 뒷받침하고 있으며, 더욱이 교육운영상에서 소수민족의 자주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즉, 중국의 헌법과 민족구역자치법에는 민족자치지방의 정치, 경제와 문화의 특점에 근거하여 자치권을 인정하고 있다. 자치권의 주요내용으로는 입법권, 민족언어문자 사용권, 인사권, 자주적으로 지방경제 건설을 조직하고 관리하는 권리, 자연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비롯하여, 만약 상급국가기관의 결정들이 본 지방의 실제정황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기관은 상급국가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얻은 후 융통성있게 집행하거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허원헌·김하록, 1993 : 38-39). 그렇다면 문제는 주어진 제도적 한계속의 자주권과 자치권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민족교육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느냐는 조선족의 주체적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4) 연변지구의 조선족 학생중 타지역 대학에 진학한 우수한 인재들이 다시 연변지구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2가지로 지적할 수 있다. 첫째, 타지역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전공한 분야가 현재 연변지구의 경제적 여건이나 조건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대도시지역에 남아 자신의 분야를 살릴 수밖에 없다. 둘째, 조선민족에 대한 책임감의 결여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 셋째, 타지역 대학진학이 보다 나은 생활여건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대도시로의 진입을 시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의 경우 이주한 역사가 100여년을 경과하면서 漢族 속으로의 이주와 적응에 자신감 축적은 물론 엘리트로서 적응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연변지구로 돌아오는 비율은 극히 적다.

참 고 문 헌

강영덕. 1993.「조선족 초중학제개혁에 대한 실험과 연구」, 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3年 第1期.

권종식. 1988.「무엇때문에 조선족 학생들의 리과성적이 뒤지는가」, 중국조선족교육, 1988년 3월호.

김경일. 1993.「중국 조선족의 문화과정 및 문화선택의 특성」, 연변대학 동북아세아정치연구소 편, 동북아세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토론 론문집, 1993년 4월.

김동화. 1993.「중국 조선족에 대한 종국공산당의 민족정책의 력사적 고찰」, 김동화·김승철 편,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김종국. 1994.「중외조선민족 이동론」, 연변대학 21세기로 달리는 중국조선족총서 편찬위원회 편찬, 중국조선족 우렬성 연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남일성. 1987.「조선족 중소학교 학제개혁에 대한 연구」, 조선족교육론문집, 연길 : 연변교육출판사.

동범·홍식. 1993.「중국 조선족교육에 존재하는 문제와 그에 대한 사고」, 중국조선족교육, 1993년 1, 2월호.

라창진. 1988.「민족교육개혁 좌담회에서의 연설(요지)」, 중국조선족교육, 1988년 3월 22일.

리병철. 1993.「사회주의 시장경제에 직면한 혹룡강성의 조선족 교육」, 연변대학 동북아세아정치연구소 편, 동북아세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토론 론문집.

李鵬. 1994.「중국 교육개혁 및 발전요강의 실시에 일떠나서자－전국교육사업회의에서 한 보고(발췌)」, 1994.6.14., 중국조선족교육, 1994년 10월호.

리빈. 1992.「조선민족의 교육질이 내려가는 근본원인과 취해야 할 상응한 대책」, 중국조선족교육, 1992년 7·8월 합본호.

리영식. 1993.「초·중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 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3年 第1期.

박규찬·허청선외. 1991.「중국조선족교육사」, 연길 :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박태수·김영림. 1992.「중국조선족의 교육과 문화－교육가치관념을 중심으로」, 조선학연구, 제4권, 연길 : 연변대학출판사.

반창화. 1993.「선택조사에서 본 자녀교육에 대한 념원」, 연변일보, 1993.3.20.

송장한. 1994.「"연변조선족자치주 조선족교육조례"의 민족특색을 론함」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4年 第2期.

엄정식. 1994.「개방화시대의 대학생과 민족적 자아의 정립」, 1994년도 한국교육학회 춘계학술대회, 국제화개방화에 대비한 대학교육의 혁신, 1994.5.28.

엄증국. 1994.「전주 교육사업회의에서 한 중국 연변주위 상무위원이며 부주장인 엄증국동지의 총화연설(요지)」, 중국조선족교육, 1994년 6월호.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3.「민족교육 사업 실시방안」, 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3年 第1期.

연변조선족자치주 교육위원회. 1994. 1993-1994 학년도 교육통계자료, 연길 : 연변조선족자치주교육위원회.

연변조선족자치주 인민정부. 1991.「민족지구의 특점과 실제에 좇아 기초교육의 질을 높였다」, 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1年 第1期.

李光奎. 1994. 在中韓人－人類學的 接近, 서울 : 一潮閣.

李元鳳. 1992.「中國朝鮮族 教育現況」,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편, 中國의 朝鮮族研究, 서울 : 경희대학교 아시아·태평양지역연구소.

李採畛. 1988. 中國안의 朝鮮族, 서울 : 청계연구소.

李鐵暎. 1993.「社會主義現代化建設的尊基工程」, 國家教育委員會辦公廳編, 中國教育改革和發展文獻선編, 北京 : 人民教育出版社.

정판룡. 1993.「중국조선족문화의 성격문제」, 연변대학 동북아세아정치연구소 편, 동북아세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토론 론문집, 1993년 4월.

정판룡. 1994.「우리를 다시 알 때다」, 연변일보, 1994.1.4.

주상용. 1994.「우려하게 되는 우리교육－일부 연변지구의 조선족교육 실태를 두고」, 중국조선족교육, 1994년 1월호.

한상복·권태환. 1993. 중국연변의 조선족－사회의 구조와 변화,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한창희. 1993.「료녕성 조선족 중학생들의 정치사상 실태에 대한 조사와 분석」, 東北朝鮮民族教育科學研究所, 東北教育科學, 1993年 第2期.

허원현·김하록. 1993.「연변주 민족구역 자치법제 건설사업에 존재한 몇가지 문제」, 김동화·김승철 편,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허청선. 1987.「조선족교육의 보급과 제고에 대하여」, 조선족교육론문집, 연길 : 연변교육출판사.

허청선·박태수. 1993.「중국 조선족교육과 조선족문화의 계승 발전의 관계에 대한 몇가지 사고」, 연변대학 동북아세아정치연구소 편, 동북아세아 조선민족문화의 계승과 발전, 국제학술토론 론문집, 1993년 4월.

현룡남. 1993.「연변조선족 인구발전의 몇가지 특점」, 김동화·김승철 편, 당대중국조선족연구, 연길 : 연변인민출판사.

江淵一公. 1994.「多民族社會の 發展と多文化教育－アメリカの 場合をモデルとして」, 小林哲也·江淵一公, 多文化教育の 比較研究－教育における 文化的 同化と多様化, 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中島勝住. 1994.「中華人民共和國における 少數民族教育問題」, 小林哲也·江淵一公, 多文化教育の 比較研究－教育における 文化的 同化と多様化, 福岡 : 九州大學出版會.

高奇, 이승민옮김. 1988. 중국현대교육사－반제반봉건 사회주의기의 교육, 서울 : 사계절.

國家教育委員會辦公廳. 1993. 中國教育改革和發展文獻 編, 北京 : 人民教育出版社.

王美逢. 1986.「我國對民族教育實行的特殊政策」, 民族團結, 1986.9.25－27.

柳斌. 1988.「有斌 在民族團結進步 表彰大會上發言 － 國家教委 雙十方面支持民族教育',

中教報, 1988.4.30.

方燿楣. 1994.「對高等教育實施『211工程』的歷点思考」, 中國高教研究, 1994. 5.

Bankston, III, C.L. & Min Zhou. 1995. "Effects of Minority-Language Literacy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Vietnamese Youths in New Orleans", Sociologt of Education, Vol.68(January).

Ogbu, John U. 1978. Minority Education and Caste : The American System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Academic Press.